

인터뷰

대부 10년 맞은 불교 소설가 백금남씨

“마음의 눈 뜨지 못한 상태에서 감히 ‘구도소설’ 내놓습니다”

올해로 대부 10년을 맞은 불교소설작가 백금남씨가 그간의 작품을 주제별로 정리 두권의 책으로 낸다.

“보다 깊이있는 작품쓰기에 매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탄치 않은 유년기와 청년

지난해 <칼의 어둠>을 발표해 구도소설의 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던 백씨는 최근 <칼의 어둠>을 원래 제목이었던

으로 두개의 장편을 쓰고 있다. 이미 들고 단전에 있는 한 작품은 문화에 관한 것. 두 작품의 비극적인 인연 속에서 그

지금껏 써온 작품 정리 '화두에서 심우까지' 펴내

유희를 소재로 6천매분량 장편 탈고단계

전국 지상 문화유적 CD롬에 담는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소장 정경호)는 최근 2개...

문화재 연구소 제작 3만여 정보 수록

문화재연구소 소장 정경호소장은 “문화재보존이 주로 지정 문화재에 국한돼 많은 문화 유적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총량이 유적보호와 보존에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적 사유 체험 시어로 소설가 한승원씨 '사랑은 늘...' 내보

소설가 한승원씨의 두번째 시집 <사랑은 늘 혼자 깨어있게 하고>가 나왔다. (문학과지성사)



북한문화재 사진전 열린다

8월말까지 통일연수원 통일원은 광복 50주년에 즈음해 북한에 산재해 있는 조선시대의 사원건축물 문화재와 유물들의 사진전을 정리, 지난 1일부터 8월30일까지 서울 수유리 통일연수원 북한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로 대부 10년을 맞아 그간의 작업을 정리하며 신작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백금남씨.

오세영 교수 시집 '무명연시' 재출간

지난 86년에 출간됐다가 절판된 오세영교수(서울대 국문과)의 시집 <무명연시(無明戀詩)>가 재출간됐다. (현대문학)

경주경마장 유적 발굴 이달 중순경 본격 착수

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주영)는 경주경마장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관리국의 유적발굴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경주시와 협의 거쳐 6월중순부터 본격적인 발굴에 착수키로 했다.

중요유적 발굴 사진전 부여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부여문화재연구소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6월24일까지 연구소 2층 전시실에서 광복 이후의 중요 문화유적 발굴과정과 성과를 사진으로 모은 발굴 사진전을 개최한다.

불심시심 <21>

Table with 2 columns: Title and Author. Includes '풍塵湖海十年節', '來打蓬來第一峯', '獅子聲中無別曲', '靑山流水自琴工'.

이 시는 중관(中觀)대사가 서산대사를 뵈고 지은 시이다. 중관대사는 서산대사의 문화에서 한 유파를 형성한 큰 스님이다. 기록에 의하면 중관대사는 그의 외숙이 되는 뇌묵(雷默)대사와 함께 서산의 법맥을 이은 분이다.

이대원씨 수필집 '만남의인연' 출간

20여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충남 대천으로 내려가 수필쓰기에 몰두했던 이대원씨가 그간 써 온 작품들을 모은 수필집 <만남의인연>을 냈다. (자유지성사)

광복50년 연변공연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단장 정우섭)이 광복 50주년을 기념, 오는 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중국 연변에서 공연을 갖는다.

천진불어린이무용단 제주서 정기공연 성료

5세부터 11살 어린이 26명으로 구성된 천진불어린이무용단(단장 재용섭)이 지난달 28일 제주 문예회관에서 두번째 정기공연을 가졌다.

진리의 전 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불사 부설 인생상탑. 상담전화 (02) 579-3033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유희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유희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유희와 인연공부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오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읽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인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백 담긴 자제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한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경>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